

니카라과(Nicaragua)

2004. 4

국별조사실

面積	121천km ²	貨幣單位	Cordoba(C)
人口(2003)	5.5백만 명	환율(2003년 말)	15.55C/USD
GDP(2003)	26억 달러	會計年度	1.1~12.31
1人當GDP(2003)	469달러		

1.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e	2004 ^t
경제성장률	5.9	3.2	1.1	2.3	3.5
재정수지/GDP	-7.6	-11.4	-9.3	-7.2	-5.7
소비자물가상승률	11.6	7.4	4.0	4.0	5.8

□ 중남미 최빈국이나,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 지속

- 니카라과는 1인당 GDP가 469달러에 불과한 중남미 최빈국임. 농업이 GDP의 30.5%, 고용의 40%,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농업국가로서 주요 수출 농산물은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등임.
- 1990년 차모로(Chamorro) 정부이래 추진해 온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으로 경제성장 지속, 인플레이 감소, 수출 증가, 외채 감소 등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1997-2001년 평균 경제성장률 5.0%).
- 2002년에는 블라뇨스 신임정부의 긴축정책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로 낮아졌으나, 지난해에는 국제 커피가격 상승 및 저임금을 활용한 섬유, 봉제 등 마킬라도라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금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1차산품 가격 상승과 미국과 FTA 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증가 등으로 3.1% 양호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소폭 상승세

- 2000년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동국의 물가상승률은 2002년부터 고유가 지속, 꼬르도바화 약세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한자리 수대에 머무르고 있음('03년 5.3%) .

□ 재정적자 지속

- 재정수지 적자 폭은 1999년 이후 공공부문 투자확대 및 세수기반 취약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반전하였음. 금년에도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힘입어 재정적자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11월에 예정된 총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나. 국제경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e	2004 ^t
경 상 수 지	-925	-946	-888	-803	-715
경상수지/GDP	-38.0	-37.0	-35.2	-31.4	-26.9
상품수지	-1,003	-1,006	-1,031	-1,026	-1,054
수 출	650	650	605	632	664
수 입	1,653	1,653	1,636	1,658	1,718
외환보유액	488	380	448	502	
총외채잔액	6,423	6,391	6,100	5,800	2,300
총외채잔액/GNI	286.9	278.2	265.7	224.9	86.1
D. S. R.	21.9	26.2	30.1	27.3	13.7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대규모 적자 지속

- 수출은 커피를 비롯한 농산물, 육류, 수산물 등 1차산품이 총수출의 60%를 상회하고 있어 이들의 국제가격변동과 기후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한편 수입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미비에 따른 소비재 수입과 더불어 1997년 이후 산업용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큰 폭의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음.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8억 달러로서 GDP의 31.4%에 달하였으나, 금년에는 미국과 FTA 발효,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동국의 경상적자 규모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임.

□ 외채는 과중한 수준

- HIPC 국가로 2002년 말 현재 총외채/GNP, 총외채/총수출 지표는 각각 266%, 476%로 매우 과중한 편임.
- 그러나 HIPC 결정시점 도달에 따른 외채 탕감으로 2004년 총외채/GNP와 총외채/총수출 지표는 각각 86%와 187%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 정치 · 사회동향

□ 1990년 산디니스타 혁명정부의 정권이양 이후에도 사회불안 지속

- 지난 1937년부터 40여 년간 지속된 소모사 세습체제를 타파하고 1979년 혁명으로 집권한 좌익 산디니스타 정부는 1990년 대선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14개 야당연합(UNO)의 차모로 여사에게 정권을 이양함.
- 콘트라반군(Recontras)의 반정부 활동과 산디니스타 세력과의 충돌 등으로 1994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사회불안이 계속되어 왔음.
- 1996년 보수우파 자유동맹(AL)의 알레만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알레만 대통령 및 그 측근을 둘러싼 부패의혹, 좌익 산디니스타와의 토지소유권 반환 분쟁, 국영기업의 감원 및 민영화 계획에 대한 노조의 저항 등으로 정치, 사회 불안이 지속됨.

□ 2002년 블라노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국불안 지속

- 2001년 11월 대선에서 부통령을 지낸 엔리케 블라노스(Enrique Bolanos) 자유헌정당(PLC) 후보가 3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FSLN의 오르페가 후보를 14%의 표차로 누르고 당선됨. 한편,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총선(총 92석)에서도 PLC가 53석을 차지, 제1야당인 FSLN(38석)을 누르고 과반수의석을 확보함.
- 그러나 블라노스 대통령이 2002.1 취임 이후 전임 알레만 대통령의 대규모 공금 유용사건의 강경 사법처리를 추진함에 따라 의회의 개혁, 기득권 세력간 갈등을 유발하여 정치적 어려움에 봉착함.
- 블라노스 대통령은 FSLN의 협조로 알레만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법개정에 성공하였으나, 블라노스 지지 국회의원이 PLC를 탈당한 9명에 불과하며, 알레만이 PLC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업, 빈곤, 범죄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세계은행의 빈곤축소 프로그램에 따라, 극빈층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빈곤층은 오히려 확대(전체 인구의 75%)되고 있는 실정임. 2001년 말 현재 국민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겨우 2.0%의 소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허리케인 피해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이 높아지고, 살인, 강도, 유괴 등 강력범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온두라스,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곤, 대체로 원만한 관계 유지

- 미국과의 관계는 산디니스타의 선거패배 후, 외교 및 통상 부문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개선되었고, 대만과는 꾸준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인접국가들과는 영토분쟁으로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블라뇨스 대통령 집권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음.

3.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Euromoney : 139/185 ('03. 3) → 167/185 ('03. 9)
- I.C.R.G. : 127/140 ('03. 4) → 131/140 ('04. 2)
- I.I. : 120/151 ('03. 3) → 134/172 ('03. 9)
- O.E.C.D. : 7등급 ('02. 6) → 7등급 ('03. 6)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순위 : 최하위권

- Moody's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인 Caa1 등급을 부여받고 있으며 국제상업은행으로부터의 중장기 자금도입이 불가능함.

□ 주요 ECA 지원대도 : 제한적 지원

- 미국 EXIM :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가능
- 네덜란드 NCM : 보험금청구 유예기간 9개월 조건으로 단기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가능, 중기인수제한
- 독일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대외지급능력 취약

- 1990년 107억 달러(GNP의 1,000%)에 달하였던 동국의 외채는 1990년대 이후 파리클럽, IMF, 지역개발은행 등과의 채무재조정 협정을 통해 크게 축소되었음.
- 수차례의 채무재조정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피해복구에 따른 공공부문 투자확대로 외채규모가 69억 달러까지 다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말 현재 외채규모는 GDP의 225%인 58억 달러로 여전히 경제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임.
- 2003년말 외환보유액은 5억 달러로서 수입의 3.6개월 분에 해당하여 국제기준으로 볼 때 대외지급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를 국제금융기구 등의 자금지원에 의해 보전하고 있어 실제 대외지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HIPC 결정시점 도달

- 니카라과는 금년 1월 HIPC 결정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파리클럽으로부터 45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을 수혜받게 되어 향후 외채상환부담이 크게 감소함.
- 파리클럽은 금년 3월 니카라과의 파리클럽 채무 9억 달러(NPV 기준)를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채권국 및 국제기구의 채무탕감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 금년 말 니카라과의 외채규모는 GNP의 86%인 2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 요약 및 전망

- 니카라과 경제는 2001년 이후 긴축정책과 미국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침체기를 겪었으나 지난해부터 작황 호전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볼라노스 정부는 집권당의 과반수 확보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 부패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증폭으로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긴축정책, 높은 실업률, 빈곤 확대 등에 반대하는 시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IMF와 파리클럽의 탕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채부담이 높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